

한국의 e-사회적 자본과 오프라인 시민참여: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장우영** · 송경재***

이 연구는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 형성과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비교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이 오프라인 시민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방법론은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변인별로 비사용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e-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오프라인 시민참여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인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난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는 양(+)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소셜미디어, 사회적 자본, e-사회적 자본, 오프라인 시민참여

1. 소셜미디어와 사회적 자본

21세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5772).

**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제1저자),

*** 송경재(경희대학교, 교신저자)

ICT의 급격한 진전은 산업사회의 물질 중심 세계관을 정보 중심 세계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the Internet)이 있다(김상배 2009). 인터넷은 1969년 모체인 아르파넷(ARPANET) 개발 이후 1990년대 상용화되었고,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오늘날 정보통신혁명을 주도하고 있다(Chadwick 2006).

21세기 들어서도 ICT 발전은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006년부터 보급된 스마트 기기(smart device)는 정보화 초기의 유선을 무선(wireless) 환경으로 전환하였고, 스마트용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은 데스크톱에서 벗어나 인류가 언제, 어디서나, 움직이면서 로그온(log-on)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열었다. 여기에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등장하면서, 면대면 오프라인 중심 채널이 가상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에 주목한 카스텔(Castells 2009)은 21세기 유선과 무선 기술이 통합되는 사회로서 정보 네트워크 사회(information network society)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셜미디어는 네트워크적 경향이 강한 SNS(social networking sites)와 달리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 개념이 강화된 미디어이다. 즉 SNS가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반공개하여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라면(boyd and Ellison 2007), 소셜미디어는 네트워크 성격과 더불어 콘텐츠 생산과 공유가 강화되면서 미디어 측면이 부각된 플랫폼이다(최민재·양승찬 2011, 10-11). 최근에는 전통적 미디어와 네트워크 연계가 조밀해 지면서 이른바 인스타그램(Instagram.com), 페이스북(Facebook.com), 트위터(Twitter.com), 유튜브(YouTube.com), 구글플러스(Google+) 등의 소셜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발전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성을 강화하여 정보검색과 이메일, 게시판, 토론방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정치 현상을 만들고 있다.

연구에서 주목할 정치분야에서 소셜미디어는 전통 신문이나 TV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보다 상호작용적인 특성과 신속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정치적 활용도가 높다. 소셜미디어 등장은 정치적 차원에서 새로운 ICT 정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키(Shirky 2010; 200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참여의 아키텍처(architecture of civil participation)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정치효과 연구는 단순히 시민참여 연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된 미디어가 전자정부, 선거 캠페인, 심의기능의 강화, 글로벌 시민운동 등 정치과정과 권력 관계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까지 발전하고 있다(Fraser and Dutta 2009; 조화순 2012, 24).

소셜미디어가 보급되고 활성화되면서 미디어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이 연계된 방식의 새로운 정치적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과학계에서 소셜미디어에 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시민운동 매개 효과 또는 촉발에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2011년 아랍의 봄(Arab's Spring)은 소셜미디어 효과에 관한 논쟁을 주도했다. 소셜미디어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학자들은 정치적 결집(조직화)과 동원, 집합행동에 있어 네트워크 연계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도구가 되었다고 평가한다(도묘연 2015; Diamond and Plattner 2012; 송경재·임정빈·장우영 2016, 154-167). 정치과정에서 선거와 정당 차원에서 소셜미디어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계되면서 시민이 쉽게 정치정보를 받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음에 주목했다(장우영 2014). 캠페인 차원에서는 미국 민주당의 '마이 버락 오바마 닷컴(MyBarackObama.com)'이 소셜미디어 연계사이트를 기반으로 유권자와 지지자를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Tapscott 2009). 그 영향으로 한국과 미국, 유럽의 중요 선거에서 소셜미디어는 캠페인의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Sinclair 2012; Shirky 2010).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정치과정과 다양한 정치 현상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시민운동, 조직화, 전자정부, 선거과정, 전자정당, 정치정보 공개, 토론, 투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셜미디어는 활용되고 있다(Fraser and Dutta 2009; 장우영 2014; 도묘연 2015; 조희정·이원태 2010). 그렇지만 많은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 또는 효과 연구에도 소셜미디어 기반 결사체 또는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소셜미디어가 가지는 네트워크 연계성은 집합행동을 위한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의 커뮤니티 형성과 그 민주주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소셜미디어의 특성 중의 하나인 네트워크 연계성과 집단형성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소셜미디어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 지구상의 다양한 이슈와 사건에 관해 정보를 파악하고 손쉽게 네트워크 기반 집단화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조직화와 동원에서 오프라인과 비교해 소셜미디어는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s)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Castells 2009; Lim and Song 2019). 그런 맥락에서 소셜미디어의 결사체 형성과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려는 연구시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셜미디어 집단형성이 사회의 공공선을 향상해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이란 사회적 자본 접근(social capital approach)이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 규범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무형의 공공재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정치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집합행동을 쉽게 해준다(Norris 2002).

이 연구는 ICT 발전에 따른 소셜미디어 등장과 네트워크 연계성에 기반을 둔 결사체 구성 가능성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협동과 신뢰의 지표인 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란 무형의 공유재인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을 진단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온라인 기반의 e-사회적 자본 형성이 비사용자들보다 높다면 어떤 요인들이 e-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이며 실제 정치과정에서 시민참여와는 어떤 인과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목적에 관해서 기술하고,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II 장은 소셜미디어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III 장은 분석을 통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을 진단하고, IV 장은 연구의 함의를 종합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 형성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은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2. 선행연구와 연구가설 도출

1) 소셜미디어와 사회적 자본 논쟁

사회적 자본이 정치학에 체계적으로 정착한 것은 퍼트남(Putnam 1993; 2000)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퍼트남 이전에도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콜만(Colman 1990) 등이 있었다. 부르디외(1986)는 마르크스(Marx)의 자본의 개념을 재규정하면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의했다. 이어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면식이 가능한 제도화된 관계에서 형성되는 제도적이고 지속적 관계망(network)의 자원이라고 규정했다. 콜만(1990)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관계나 구조로 파악했다. 즉 사회적 자본을 통한 사회경제적 성과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 두 명의 연구 이후 정치학에서 사회적 자본 논의는 역시 퍼트남의 연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자본이란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건국 초기 미국을 방문한 토크빌(Tocqueville 2003)은 미국 사회의 결사체

형성과 시민 참여적인 모습을 파악하고 이를 미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이러한 토크빌적 공동체주의와 연계하여 퍼트남은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지역 비교연구에서 북부지역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참여 강화가 바로 역사제도적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제시했다(Putnam 1993). 이후 사회적 자본 논의는 다양하게 발전하여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public goods)이며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 효율성을 향상하는 자본'으로 간주되었다(Norris 2002; Putnam 2000). 이후 사회적 자본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정치적인 성과 특히 민주주의 발전, 시민사회 성숙, 공동체와 시민참여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Putnam 1993, 167-173; Chadwick 2006). 퍼트남 이후 사회적 자본 연구는 주로 UN이나 The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서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공동체 재건,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분석도구로 활용되었다(Grootaert, Narayan, Jones, and Woolcock 2004; OECD 2001; Narayan 1999).

이후 정치학에서 사회적 자본을 주제로 한 연구는 집단과 조직화 동학에 관한 연구(Wellman 2001),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형성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Norris 2002), 신뢰형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Fukuyama 1999; 이동원·정갑영 외 2010),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적 자본과 참여 차이(Harell 2009), 국가 비교연구를 통한 시민성 하락과 탈물질주의의 가치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 하락(잉글하트 1998, 321-349)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최근 ICT를 이용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발전 중이다. 이른바 ICT를 활용한 e-사회적 자본 형성과 축적 가능성 연구이다. ICT를 이용한 사회적 자본 연구는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의 시기로 인터넷 연계에 따른 전통적 커뮤니티와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던 시기이

다. 초기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ICT 발전에 따라 사이버 커뮤니티와 인터넷 사용자층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e-사회적 자본 형성과 정치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Quan-Haase and Wellman 2004; Wellman 2001). 초기 연구자로 퀴안하세와 웰만(Quan-Haase and Wellman 2004)은 인터넷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실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카스텔(Castells)은 인터넷 등장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커뮤니티들이 확산되고 이들의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과 정치적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Chadwick 2006에서 재인용). 그는 초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집합행동의 동인이 집단 내에서 형성된 정보의 신뢰와 호혜성,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크라우트와 동료들(Kraut, Patterson, Lundmark, Kiesler, Mukopadhyay, and Scherlis 1998)과 웰만(Wellman 2001)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형태의 사이버 커뮤니티에 주목했다. 이들은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현실 공간의 면대면(face to face)과는 다른 사회적 자본인 e-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고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샤와 콕, 홀버트(Shah, Kwak and Holbert 2001)도 미국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 이용과 공동체 활동 참여, 상대방에 대한 신뢰, 생활에서의 만족감 등 3가지 요소에 대해 실증연구를 했다. 그 결과, 정보 이용을 위한 인터넷 사용이 e-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주민참여 간에 양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지나친 과장이란 비판도 존재한다.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쇠퇴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e-사회적 자본은 아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을 정치학에 접목한 퍼트남(2000)은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현실 공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이와 힐리거스, 어브링(Nie, Hillygus, and Erbring 2002)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시민

들이 관심사는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현실정치에 관한 관심이 오히려 줄어들 것을 경고한다. 이들은 결국 이러한 관심의 다양화가 현실 시민사회나 정치에 관한 관심을 하락시켜 지역 결사체나 이익 공동체를 둘러싼 정치의 영역은 쇠퇴할 것으로 보기도 했다.

2기는 2005년 이후 소셜미디어 확산기이다. 2005년 이후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e-사회적 자본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른바 친구의 친구를 연계해주는 네트워크 기능이 강한 소셜미디어는 개인 미디어 기능과 연결되면서 손쉽게 집단형성과 조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Shirky 2010). 이에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e-사회적 자본 연구는 활발해졌다. 대표적으로 안티유니스와 동료들(Antheunis, Vaden Abeele, and Kanters 2015, 399-419)은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e-사회적 자본의 가능성을 진단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가 개인 미디어이지만 다양한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차원에서 내적으로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을 동시에 강화한다고 증명했다.¹⁾ 아울러 이들은 타인과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소수의 사람과 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해주는 (poor get richer)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micro-level social capital)으로 해석하고 있다. 엘리슨과 스테인필드, 램페(Ellison, Steinfield and Lampe 2007)는 페이스북 사용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속형(bonding)과 연계형(bridging) 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을 증명한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e-사회적 자본 유형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온라인상에서의 볼링(bowling online)이 가능

1) 사회적 자본은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라얀(Narayan 1999)은 사회가 동질적이지 않고 계층·계급·종교·지역 등 다양한 인자들로 구성되므로 각 집단은 나름대로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며 발전한다고 보았다. 내적으로 결속(bonding)하거나, 외적으로 타 집단과의 연결(bridging)과, 사람과 사람의 연계(linking)형태로 발전 가능하다.

하며 전통적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의 유형을 소셜 미디어 연계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Steinfeld et al. 2009, 245-254; Steinfeld, Ellison, Lampe and Jessica 2012; Lim and Song 2019).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함께 e-사회적 자본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윌리엄스(Williams 2006)는 소셜미디어에서 형성된 e-사회적 자본을 “소셜 자본”으로 규정하고 시민 참여적인 특성에 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과 소셜 자본의 차이를 진단하고 참여 효과에 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의 e-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는 2005년 이후 본격화되면서 e-사회적 자본의 온라인 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니가 등(Züñiga, Barnidge, and Scherman 2017, 44-68)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e-사회적 자본이 인터넷상에서 시민들의 시민 참여와 인과성이 있음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발렌줄라(Valenzuela 2013) 역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동적인 정치정보를 확산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가 활발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소셜 연결은 온라인 기반의 e-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임을 분석하고 있다. 야마모토, 쿠신과 달리사이(Yamamoto, Kushin, and Dalisay 2013) 역시 소셜미디어와 결합된 모바일 환경에서의 온라인 참여에 주목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결합된 스마트폰의 영향에 관한 복합적인 분석에서도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과 온라인 조직화와 동원의 실증적 지표들을 확인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주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온라인 정치참여 분석에 한정되었다. 이에 비해 한중우(2012)는 소셜미디어로 연계된 시민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참여적인 특성을 분석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등의 ICT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연계성을 가진 e-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이 집단의 e-사회적 자본은 오프라인의 시민참여와 정치행위에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중우는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e-사회적 자본의 오프라인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한국의 노사모와 미국 오바마의 소셜 미디어 정치(social media politics)에서 보았다.

한국에서도 소셜미디어의 e-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도 다수 확인된다. 아직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민참여 분석 연구가 다수이지만(조화순 2012, 23-48)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소연과 이상우(2012, 191-232)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의 사회적 자본 형태를 구분하고, 각각의 참여 차이를 연구했다. 김은이와 정선영, 문원기(2015)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을 유형화하여 시민참여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자 중에서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때 보다 더 참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민의 정치참여에서 다르며, 또한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최지향(2016) 역시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e-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에 어떤 인과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최지향은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정치적 상호작용과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 구성, 정치전문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인한 정치적 지향성이 강하다고 보았다. 이어 분석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자체는 시민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통해 획득한 정치적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활동에 적극적임을 확인했다.

한편 소셜미디어 사용의 세대 구분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송경재(2018, 115-132)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시민 정치참여 결정 변인을 분석하고 세대별 차이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분석에서 2040세대의 정치적 행위가 관습적인 참여보다는 비관습적인 정치참여 지향적임을 확인했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e-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오프라인에서의 참여방식의 차이까지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셜미디어의 e-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의 형성 유형에 따른 시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가 소수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과모형이나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온라인 시민참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 간의 연계 고리에 대한 분석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가 eMarketer.com의 추산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으로 3,29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과 시민참여 효과에 관한 분석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를 ‘e-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오프라인 현실 결사체 참여자보다는 느슨한 연계(weak ties)와 온라인 기반이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은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크라우트 등(Kraut et. al 1998)과 웰만(Wellman 2001)은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네트워크와 인간 관계를 새로운 e-사회적 자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수용하여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서 형성된 e-사회적 자본을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구분할 것이다.

2) 연구가설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사회적 자본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을 2차 표본추출하여 e-사회적 자본과 사회경제 변인이 오프라인 시민참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연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적 방법론(quantitative method)을 적용했다. 설문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선거권을 가진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17일~21일까지 조사했다.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표집 추출법을 사용하여 1,138명을 추출하였다.²⁾ 조사방법은 이메일 발송 후에 자기평가기입식(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적용하였고, 측정치는 명목척도와 리커트(Likert) 척도 등을 혼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 표본은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25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독립표본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했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측정지표를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여 도출했다. 설문은 선행 연구자들이 실시한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설문조사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에서 차용하였고, 세부적 문항설계는 사회적 자본 연구의 권위자인 퍼트남이 주도하는 Harvard Kennedy School의 The Saguaro Seminar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사회적 자본 측정(이동원·정갑영 외 2010), 서울시 사회적 자본 측정(조권중 2010)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신뢰(trust)는 사회 성원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신뢰의 다층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최은경·연보영 2012, 216), 연구자들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자들이 신뢰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는 협동적인 행동의 기대감이기 때문이다. 조직이나 공동체는 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

2) 이메일 발송 건수는 7,984건, 응답은 1,283건으로 응답률은 16.35%이며 데이터 마이닝 이후 추출된 최종 건수는 1,138건이다.

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Fukuyama 1999; 최은경·연보영 2012, 218; Lim and Song 2019). 이 신뢰를 측정하는 데 있어 선행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사적 신뢰와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Uslaner 1997; 이동원·정갑영 외 2010; 조권중 2010; Ellison, Steinfield and Lampe 2007).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설문을 종합하여 지나가는 타인에 대한 사적 신뢰와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로 구분했다. 신뢰변인의 조작화는 ① 지나가는 타인에 대한 신뢰, ② 정부 신뢰를 측정했다.

둘째, 규범(norms)은 선택이나 행위기준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에게 호혜성(reciprocity)을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한다(이재신·이영수 2012). 따라서 규범은 콜만(Coleman 1990)이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규범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호혜성은 타인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 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Putnam 2000; 이재신·이영수 2012, 65). 퍼트남은 규범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답, 법질서, 공동체 규약 준수여부 등을 지표로 제시하였다. 규범 지표는 ① 모르는 타인을 도와준 경험, ② 범법행위 신고, ③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지에 대한 인식, ④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인식을 측정했다.

셋째, 네트워크(network) 변인은 연계(ties)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퍼트남(2000)은 연계와 유대의 다층위를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강한 연계와 약한 연계 그리고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최은경·연보영 2012, 220). 엘리슨 등(Ellison, Steinfield and Lampe 2007)은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라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e-사회적 자본 특성이 내적연계와 외적연계의 강함의 차이를 분석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네트워크 형성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서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은 ① 이웃과의 교류 만남 ② 동네 주

민과의 대화를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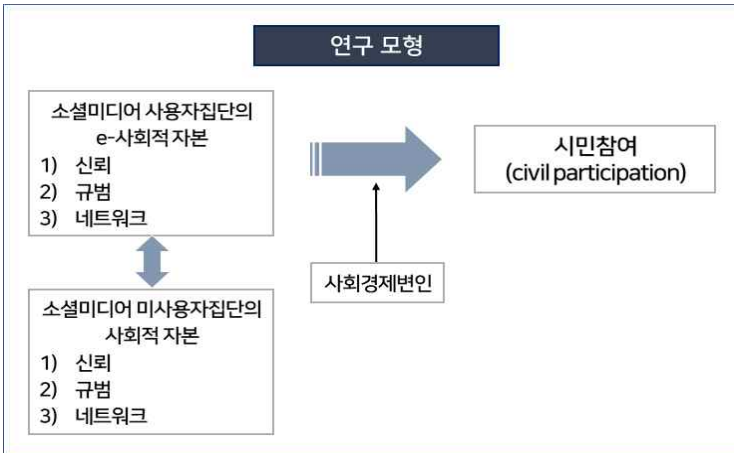
그리고 사회경제 변인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투입했다. 시민참여에서 사회경제 변인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변인이다. 고소득과 고학력이 시민참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Verba and Nie 1972; Campbell, Converse, Miller, and Stokes 1960; Lipset 1960). 연구에서는 성, 연령, 학력, 소득, 도시 규모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은 오프라인 시민참여를 설정했다. 다이아몬드 (Diamond 1999)는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문화 형성과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특성으로 정치적 관심사에 반응 적이고(한중우 2012), 온라인 내에서의 참여를 강화한다(Yamamoto et al. 2013) 그러나 오프라인 시민참여 영역은 다양한 층위에서 측정할 수 있고, 학자마다 다른 방식의 오프라인 시민참여를 제시하고 있다(이승중·김혜정 2011). 유형에 따라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Lim and Song 2019), 온라인 참여와 오프라인 참여(장우영·송경재 2017; Castells 2009), 참여 유형자에 따른 참여 행태 등 다양하다. 논문에서 사용할 시민참여의 조작적 정의는 오프라인 시민단체 참여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을 정치학에 도입한 퍼트남(1993)이 이탈리아와 남부와 북부 비교연구에서 시민단체 참여가 사회적 자본과 중요한 인과성이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리스(Norris 2002) 역시 시민단체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요한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에서 소셜미디어의 e-사회적 자본 형성이 오프라인 시민참여와의 인과성을 파악하는데 시민단체 참여가 측정하기 좋은 변인이 될 것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차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시민참여 지표를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시민단체 참여나 지역사회 활동으로 조작화하였다.

〈 표 1 〉 변인의 조작화

구분	설문 문항	척도
신뢰	귀하께서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신뢰하십니까?	4척도/4=매우 신뢰한다.
	귀하께서는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4척도/4=매우 신뢰한다.
규범	귀하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까?	4척도/4=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지나가는 도중에 범법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신고를 하시는 편입니까?	4척도/4=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4척도/4=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척도/4=매우 긍정적이다.
네트워크	귀하께서는 살고 있는 동네의 주변 이웃(또는 아파트 주민)과 교류하십니까?	4척도/4=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람과 만나면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4척도/4=매우 그렇다.
시민참여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십니까?	4척도/4=매우 많다.

〈 그림 1 〉 연구의 모형



이상을 바탕으로 연구가설과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신뢰 형성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규범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형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e-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분석

1) 표본의 개요

추출된 표본은 소셜미디어 사용자 870명, 비사용자 268명이다. 먼저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남성 442명(50.8%), 여성 428명(49.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선거권이 있는 만 19~29세 195명(22.4%), 30대 173명(19.9%), 40대 177명(20.3%), 50대 191명(22.0%), 60세 이상 134명(15.4%) 이다.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학력은 고졸미만 15명(1.7%), 고졸 144명(16.6%), 대재 또는 대졸(전문대 포함) 609명(70.0%), 대학원재학 이상 102명(11.7%)이다. 소득별로는 200만원 이하 79명(9.1%), 201~400만원 301명(34.6%), 401~600만원 266명(30.6%), 601~800만원 136명(15.6%), 801만원 이상 88명(10.1%) 이다. 그리고 거주지역 도시규모 별로는 대도시(광역시 이상) 450명(51.7%), 중소도시 376명(43.2%) 이다.

한편 소셜미디어 비사용자 표본은 268명이 추출되었고 남성 134명(50.0%), 여성 134명(50.0%)이다. 연령별로는 만19~29세 28명(10.4%), 30대 56명(20.9%), 40대 81명(30.2%), 50대 69명(25.7%), 60대와 70대 34명(12.7%)이다. 학력별로는 고졸미만 6명(2.2%), 고졸 44명(16.4%), 대재와 대졸 188명(70.1%), 대학원재학 이상 30명(11.2%)로 표집되었다.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하 25명(9.3%), 201~400만원 102명(38.1%), 401~600만원 77명(28.7%), 601~800만원 34명(12.7%), 801만원 이상 30명(11.2%)이다. 거주하는 도시규모는 대도시 124명(46.3%)이고 중소도시 127명(47.4%), 군 지역 17명(6.3%)이다.

〈 표 2 〉 표본의 개요

구분		소셜미디어 비사용		소셜미디어 사용	
		N	%	N	%
성별	남성	134	50.0	442	50.8
	여성	134	50.0	428	49.2
연령별	만 19~29세	28	10.4	195	22.4
	30대	56	20.9	173	19.9
	40대	81	30.2	177	20.3
	50대	69	25.7	191	22.0
	60세 이상	34	12.7	134	15.4
학력별	고졸 미만	6	2.2	15	1.7
	고졸	44	16.4	144	16.6
	(전문)대재 또는 대졸	188	70.1	609	70.0
	대학원재 이상	30	11.2	102	11.7
소득별	200만원 이하	25	9.3	79	9.1
	201~400만원	102	38.1	301	34.6
	401~600만원	77	28.7	266	30.6
	601~800만원	34	12.7	136	15.6
	801만원 이상	30	11.2	88	10.1
도시규모	대도시(광역시)	124	46.3	450	51.7
	중소도시	127	47.4	376	43.2
	군지역	17	6.3	44	5.1
소계		268	100.0	870	100.0

2) 분석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 지표로 적용했다. 투입된 변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변인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했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공통성(communalities) 값이 0.5이하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사회적 자본 측정 변인의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유의미한 요인들은 모두 3개이며, 이들은 전체 분산의 60.606%를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요인들의 공통적 속성을 확인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 추출되어 요인 1(F1)은 ‘신뢰’, 요인 2(F2)는 ‘규범’, 요인 3(F3)은 ‘네트워크’로 명명했다.

다음으로 추출된 요인군 별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므로 요인별로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를 측정했다. 신뢰성 검증은 신뢰(F1) 0.507, 규범(F2) 0.637, 그리고 네트워크(F3) 0.772로 나타났다. 변수 신뢰도가 높아 내적 일관성이 있는 요인의 척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 설문지 항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은 있다.

〈 표 3 〉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구분	신뢰 (F1) Eigen Value=16.058	규범 (F2) Eigen Value=23.965	네트워크 (F3) Eigen Value=20.583	Cronbach's Alpha Coefficient
지나가는 타인 신뢰	.730	.071	.231	.507
정부 신뢰	.813	.119	-.066	
타인을 도와준 경험	.073	.610	.152	.637
범법행위 신고	-.094	.714	.134	
주변 사람에게 도움	.121	.687	.134	
자원봉사/기부활동 인식	.220	.671	.023	
이웃과의 교류	.058	.162	.880	.772
지역 주민과의 대화	.096	.174	.869	

연구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사회적 자본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설을 검증하는 통계분석은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독립표본 t-test를 적용하였다. 먼저 신뢰 요인군(F1)은 우슬러너(Uslander 1997)가 분류한 일반적 신뢰인 지나가는 타인 신뢰와 공적 신뢰인 정부 신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나가는 타인 신뢰와 공적 신뢰는 소셜미디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타인 신뢰는 비사용자 1.93포인트, 사용자 1.97포인트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약간 높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t=-.905$). 정부 신뢰 역시 비사용자 2.02포인트, 사용자 2.03포인트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조금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t=-.247$). 이 결과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사회적 자본의 신뢰 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4 〉 신뢰 변인 분석 결과

변인	소셜미디어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지나가는 타인 신뢰	비사용자 (N=268)	1.93	.629	-.905
	사용자 (N=870)	1.97	.631	
정부 신뢰	비사용자 (N=268)	2.02	.716	-.247
	사용자 (N=870)	2.03	.717	

* $p<.05$, ** $p<.01$, *** $p<.001$

다음 규범 요인군(F2)은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변인으로 채택한 4가지 중에서 자원봉사/기부활동 인식을 제외하고 3변인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우선 타인을 도와준 경험은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85$, $p<.001$). 그리고 준법정신을 측정할 수 있는 범법행위 신고 의향도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더욱 강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t=-4.000, p<.001$). 호혜성의 규범을 측정하는 지표로 투입된 주변 사람의 도움도 통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93, p<.01$). 자원봉사/기부활동에 관한 인식은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t=-1.182$). 이러한 결과는 규범 요인군(F2)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통계적으로 강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자원봉사/기부활동 인식도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3.07포인트로 비사용자 3.02포인트보다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자본 중에서 규범은 비사용자보다 강한 특징을 보인다.

〈 표 5 〉 규범 변인 분석 결과

변인	소셜미디어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타인을 도와준 경험	비사용자 (N=268)	2.54	.625	-4.085 ***
	사용자 (N=870)	2.72	.598	
범법행위 신고	비사용자 (N=268)	2.55	.715	-4.000 ***
	사용자 (N=870)	2.75	.704	
주변 사람에게 도움	비사용자 (N=268)	2.63	.632	-2.593 **
	사용자 (N=870)	2.74	.649	
자원봉사/기부활동 인식	비사용자 (N=268)	3.02	.721	-1.182
	사용자 (N=870)	3.07	.647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네트워크 요인군(F3)은 이웃과의 교류,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측정변인 모두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비사용자들보다 네트워크 형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교류는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2.34포인트, 비사용자는 2.21포인트로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이 확인되었다($t=-2.569, p<.05$). 지역 주민과의 대화 변인 역

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72, p<.05$). 이 결과는 과거 퍼트남(Putnam 2000)이나 나이와 힐리거스, 어브링(Nie, Hillygus, and Erbring 2002)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TV나 ICT 발전이 오프라인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감소시켜 네트워크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연구 결과는 후술하겠지만 실제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오프라인의 공동체적인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사용자보다 강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함을 확인해 준다.

〈 표 6 〉 네트워크 변인 분석 결과

변인	소셜미디어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이웃과의 교류	비사용자 (N=268)	2.21	.755	-2.569 *
	사용자 (N=870)	2.34	.757	
지역 주민과의 대화	비사용자 (N=268)	2.54	.771	-2.172 *
	사용자 (N=870)	2.66	.776	

* $p<.05$, ** $p<.01$, *** $p<.001$

이상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는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e-사회적 자본이 “규범적이고 네트워크 적인 특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화한 연구주제로 분석한 것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만을 2차 표본 추출하여 (N=870), e-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오프라인 시민단체 활동인 시민참여와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은 독립 변인들을 요인별 일괄투입방식(enter)한 최소자승법(OLS) 다중회귀분석 중에서 사회적 자본 변인과 사회경제 변인을 구분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델 I 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5.636, p<.001$).

그리고 모델 설명력을 보여주는 Adj R²=0.026이다. 각 모형의 자기상관을 파악할 수 있는 더빈-왓슨(Durbin-Watson) 계수는 2.048으로 나타났다. D-W값이 2에 가까우면 오차항 간에 독립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투입된 사회경제 변인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도시 규모이다. 투입된 변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연령($p<.001$)과 도시 규모($p<.05$)이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사회경제 변인에 따른 시민참여와의 인과성은 고연령일수록, 그리고 광역시 등의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β 는 역시 연령 변인이 .160으로 시민참여의 단위당 변화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량이었다.

본격적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 II는 사회적 자본 변인과 사회경제 변인을 모두 투입하였다. 모델 II의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고 ($F=12.885$, $p<.001$), 모델 설명력인 Adj R²=0.151로 설명력이 모델 I보다 높았다. D-W 계수는 2.128로 자기 상관은 없었다. 사회적 자본 변인이 투입된 통합모델 II는 다양한 변인 간의 시민참여 인과성이 확인되었다.

첫째, 사회적 자본 변인은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변인이 시민참여와의 인과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신뢰는 지나가는 타인 신뢰($p<.01$), 정부 신뢰($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지나가는 타인 신뢰가 강할수록, 정부 신뢰가 강할수록 시민 참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변인들 중에서는 타인을 도와준 경험이 많을수록($p<.001$) 시민 참여적이었다. 그리고 범법행위 신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 자원봉사/기부활동 인식 등은 시민참여와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네트워크 변인 중에서는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할수록($p<.001$), 지역 주민과의 대화가 많을수록($p<.05$) 시민참여 적이었다. 둘째, 사회경제 변인은 모델 I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도시 규모가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되었다. 고연령일수록($p<.1$),

대도시에 거주할수록($p < .05$) 시민참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 β 는 연령과 도시 규모가 .066, -.074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 형성은 오프라인에서의 시민단체 참여 변인과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7 〉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회귀모델

구분	모델 I			통합 모델 II		
	B	표준화계수 β	t	B	표준화계수 β	t
상수	1.243		5.788 ***	-.482		
사회적 자본 변인						
1. 신뢰						
지나가는 타인 신뢰				.120	.089	2.619 **
정부 신뢰				.117	.099	3.008 **
2. 규범						
타인을 도와준 경험				.220	.155	4.466 ***
범법행위 신고				.029	.024	.689
주변 사람에게 도움				-.029	-.022	-.623
자원봉사기부활동 인식				.067	.051	1.434
3. 네트워크						
이웃과의 교류				.173	.154	3.769 ***
지역 주민과의 대화				.094	.085	2.035 *
사회경제 변인						
성별	.022	.013	.377	.018	.011	.327
연령별	.100	.164	4.847 ***	.041	.066	1.956 †
학력별	.043	.030	.849	.068	.047	1.444
소득별	.023	.030	.884	-.009	-.012	-.362
도시규모	-.097	-.068	-2.019 *	-.107	-.074	-2.371 *
F		5.636 ***			12.885 ***	
Adj R2		.026			.15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4. 토론 및 연구의 함의

소셜미디어 사용자 증가에 따라 ICT 플랫폼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다이아몬드와 플라트너(Diamond and Plattner 2012)는 소셜미디어를 위시한 ICT가 자유화 기술(liberation technology)과 통제 기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랍의 봄에서 나타난 자유화 기술이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통제기술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ICT가 발전하면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몽크(Mounk 2018)는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악용과 가짜뉴스(fake news) 확산은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의 민주주의 효과의 낙관과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 형성과 시민참여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 증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각 변인 별로 비사용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e-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오프라인 시민참여 역시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난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는 양(+)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e-사회적 자본과 오프라인 시민참여 간의 특성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비사용자들보다 규범과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는 e-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다. 결과는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규범적이고 네트워크 지향성이 있는 e-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사

용자는 비사용자보다 호혜성의 규범과 네트워크 지향성이 강한 e-사회적 자본을 형성·축적하고 있다.

둘째, 신뢰 변인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비사용자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Fukuyama 1999), 소셜미디어 사용자들과 비사용자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비사용자들에 비해 높은 신뢰를 보인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단지 오프라인의 공동체나 결사체 약화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을 요약하면 “규범적이고 네트워크 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결과는 e-사회적 자본 형성에서 한국적 맥락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해서 타인을 도와주거나, 범법행위 신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 이웃과의 대화, 지역 주민과의 대화가 비사용자보다 높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혜성의 규범과 네트워크의 다양한 형성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게 나타나는 e-사회적 자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소셜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인 약한 연대(weak ties)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인 규범 공동체를 형성할 개연성이 있다.

넷째,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2차 표본 추출하여 사회적 자본 변인과 오프라인 시민참여 간의 인과성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e-사회적 자본 구성 요소 모두 오프라인 시민참여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오프라인에서의 시민참여를 약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선행 연구자들과 다르게 소셜미디어 사용이 사회적 자본 감소와 오프

라인 시민참여를 하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몽크(2018)와 나이 등(2002), 퍼트남(2000) 등이 예측한 바와 달리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회적 자본이 쇠퇴하지도 않고 오프라인에서 시민참여가 약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오히려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차원의 e-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소셜미디어의 사용 → e-사회적 자본 형성 → 오프라인 시민단체 활동 강화라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 결사체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을 제시한 다이아몬드(Diamond 1999)의 선행 연구를 보완한다면, e-사회적 자본도 오프라인과 같이 선순환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약한 연계의 네트워크도 e-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오프라인과 같이 시민적 덕성, 공적 책임의식 등의 민주주의의 학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이동원·정갑영 외 2009, 80-81).

다섯째, 하지만 연구가 가지는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의 e-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시민 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는 한계가 존재한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이 오프라인 시민참여와의 인과성이 있다는 결론은 도출했지만, 이것이 소셜 미디어 사용만의 효과인지 다른 영향 변인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의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기준 인터넷 사용자 수는 4,635만 명으로 전 국민의 91.8%에 해당한다. 이는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인터넷 사용 강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된 ICT 환경 영향도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e-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일정한 외부 변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셋째, 따라서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 특성이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이다. 이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과 오프라인 시민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규범적이고 네트워크 적인 특성을 가진 e-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에 따른 오프라인 시민참여 간의 선순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함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020년 4월 1일 접수, 5월 11일 심사완료, 5월 21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상배. 2009. 『인터넷 권력의 해부』. 파주: 한울아카데미.
- 김은이·정선영·문원기. 2015. “SNS, 사회자본 네트워크 유형, 그리고 정치참여: SNS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9권 1호.
- 도묘연. 2015.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 행태 분석: 18대 대선의 사례.” 『국제정치연구』 제18권 제1호. 175-196.
- 송경재. 2018. “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비관습 참여적인 소셜 정치세대의 등장.” 『한국정치연구』 27권 2호. 115-132.
- 송경재·임정빈·장우영. 2016. “SNS는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7호. 154-167.
- 신소연·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 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권 4호. 191-232.
- 우슬러너, 에릭. 박수철 역. 2010. 『신뢰의 힘』. 서울: 오늘의 책.
- 이동원·정갑영 외. 2010.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승중·김혜정. 2011.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재신·이영수. 2012. “사회자본과 SNS.”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61-80.
- 잉글하트, 로버트. 1998. “후기 물질주의 가치관과 공공기관들의 권위 추락.” 나이 외 편저. 박준원 옮김.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서울: 굿인포메이션. 321-349.
- 장우영. 2014. “소셜네트워크 캠페인과 유권자 참여효과: 18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23권 제3호. 247-268.
- 장우영·송경재. 2017. “SNS 사용자집단의 네트워크 특성과 정치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5권 3호. 353-376
- 조권중. 2010.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희순. 2012.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의 미래 -연구의 동향과

- 과제.” 『대한정치학회보』 19권 3호. 23-48.
- 조희정·이원태. 2010. “소셜미디어의 선택적 적응과 정치발전: 2010년 영국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호. 141-179.
- 최민재·양승찬. 2009.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저널리즘』. 서울: 한국언론재단.
- 최은경·연보영. 2012.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자본.” 한국방송학회 방송과수용 자연학회 엮음. 『소셜 미디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지향. 2016. “SNS 이용과 정치참여:정치적 사회자본과 정보 및 오락추구 동기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제60권 제5호. 123-144.
- 커크 페트릭, 데이비드. 임정민·임정진 옮김. 2010. 『페이스북 이펙트(Facebook Effect)』 서울: 에이콘.
- 한중우 지음. 전미영 옮김. 2012. 『소셜 정치혁명세대의 탄생』. 서울: 도서출판 부키.
- Antheunis, Marjolijn, Vaden Abeele, M.M.P., and Kanters, Saskia. 2015. “The Impact of Facebook Use on Micro-Level Social Capital: A Synthesis.” *Societies*. 5. 399 - 419.
- Boyd, danah and Ellison, Nicole.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https://academic.oup.com/jcmc/article/13/1/210/4583062> boyd.ellison.html (accessed 22 March, 2020).
- Bourdieu, P. 1986.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ampbell, Angus, Gurin, Gerald and Miller, Warren Edward. 1954. *The Voter Decides*. Greenwood Press.
- Castells, Manuel.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and Plattner, Marc. 2012. *Liberation Technology: Social Media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llison, Nicole, Steinfield, Charles, and Lampe, Cliff.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j.1083-6101.2007.00367.x> (accessed on 18 March, 2020).
- Fraser, Matthew and Dutta, Soumitra. 2009.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How Online Social Networking Will Transform Your Life, Work and World*. Hoboken: Wiley.
- Fukuyama, Francis. 1999. *The Great Disruption*. New York: Free Press.
- Harell, Allison. 2009. "Equal Participation but Separate Paths?: Women's Social Capital and Turnout."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30(1).
- Kraut, Robert, Patterson, Michael, Lundmark, Vicki, Kiesler, Sara, Mukopadhyay, Tridas, and Scherlis, William.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Shah, Dhavan V., Kwak, Nojin, and Holbert, Lance. 2010.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18(2).
- Lim, Seong-Ho, and Song, Kyongjae. 2019. "Social Capital and the Information Network Society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50(3). 419-442.
- Lipset, Martin. 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Mouk, Yascha. 2018.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 and How to Save It*. Cambridge: Harvard
- Narayan, Deepa. 1999. "Bonds and Bridges: Social Capital And Poverty." World Bank.
- Nie, N. H, Hillygus D. S, and Erbring L. 2002. "Internet us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ociability." in B. Wellman and C. Haythornthwaite (Eds.). *The Internet in everyday life*. Malden, MA: Blackwell.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OECD.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 Quan-Haase and Wellman, Berry. 2004. "How does the Internet Affect Social Capital?" in Marleen Huysman, and Volker Wulf (Eds.)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 Shirky, Clay. 2010. *Cognitive Surplus: Creativity and Generosity in a Connected Age*. London: Penguin Press.
- Shirky, Clay. 2008.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New York: Penguin Press.
- Sinclair, Betsy. 2012. *The Social Citizen: Peer Networks and Political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infeld, Charles, DiMicco, Joan, Ellison, Nicole, and Lampe, Cliff. 2009. "Bowling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social capital within the organization."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ties and technologies: New York.
- Tapscott, Don. 2009. *Grown Up Digital: How the Generation is Changing Your*

- World*. New York: McGraw-Hill.
- Grootaert, Christiaan, Narayan, Deepa, Jones, Veronica Nyhan, and Woolcock, Michael.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Penguin Classics(13th printing).
- Valenzuela, S. 2013. "Unpacking the use of social media for protest behavior: The roles of information, opinion expression, and activism."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7(7). 920-942.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Wellman, Berry. 2001. "Physical Place and Cyberspace: The Rise of Personalized Networks." *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2). 227-252.
- Williams, D. 2006. *Virtual cultivation: Online worlds, offline percep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6(1). 69-87.
- Yamamoto, M., Kushin, M. J. and Dalisay, F. 2013. "Social media and mobiles as political mobilization forces for young adults: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online political expression in political participation." *New Media & Society*. 17(6). 880-898.
- Zúñiga, Homero Gil, Barnidge, Marthew, and Scherman, Andrés. 2017. "Social Media Social Capital, Offline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Exploring Asymmetrical Social Capital Effects." *Political Communication*. 34(1). 44-68.

A Study on E-Social Capital and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Chang Woo-Young** · *Song Kyong Jae***

Social media users are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The study analyzed e-social capital formation and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social media users. The research methodology utilized the results of a survey to measure the social capital of South Korean social media user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social media users in South Korea are accumulating e-social capital with strong norms and networks. Second, the e-social capital of South Korean social media users has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Third, the research confirmed the virtuous cycle effect of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use of social media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Key Words: social media, social capital, e-social capital,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Daegu Catholic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Public Governance, Kyung Hee University